

투데이 칼럼

중동 분쟁 전망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아히야 신와르(61)가 숨지면서 중동분쟁이 다시 중대 기로에 섰다. 이스라엘이 내전 가자지구 전쟁 목표인 하마스 해체가 달성된 게 아니라는 인식 속에 국제사회의 중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 지속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며 역대 반이스라엘 세력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세력을 주도하는 이란도 항전을 경고하며 맞서는 만큼 종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신와르는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침투해 1천200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하마스 기습작전의 총책임자였다. 신와르는 최후를 맞이할 때 인간 방패로 사용할 이스라엘인 인질이나 여러 명의 경호 인력을 곁에 두고 있지 않았다.

그가 땅굴 깊이 안전하게 은신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포착된 이런 취약성은 하마스의 불안정한 처지를 보여준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전체가 이스라엘 공격에 초토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직원과 기반 시설을 잃었다.

요새화한 지하터널은 계속 파괴되고 있으며 쑥대밭이 된 주요 거점인 가자지구 북부는 재건 가

능성 때문에 최근 다시 폭격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당국은 1년여 전쟁 동안 하마스 조직원 3만명 중에 1만5천 명 이상을 죽였다고 추산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주도하던 수뇌부가 속속 살해되면서 구심력을 잃고 있다. 최정예군 알카삼 여단의 무함마드 데이프 사령관은 지난 7월 이스라엘군 폭격에 죽었다. 하마스의 정치지도자이자 1인자이던 이스마일 하냐에는 같은 달 말 이란 테헤란에서 이스라엘 포격 공습에 암살당했다. 수장의 자리를 이어받아 신출귀몰하며 조직을 끌어온 신와르마저 사망해 지도부 공백에 충격을 더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의 발미를 제공한 원흉이자 휴전 협상 방해꾼이 사망한 만큼 종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

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나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해 종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하마스는 이제 작년 10월7일 같은 또 다른 테러를 감행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하마스가 통치하지 않는 가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에 나은 미래를 제공할 정치 해결의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신와르는 하마스 수장으로서 가자지구 휴전에 반대해온 하마스 내 대표적 강경파였다. 가자지구 휴전을 중재하는 데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신와르의 존재 자체를 휴전의 걸림돌로 인식해왔다. 국제사회에서는 가자지구에 지속되는 인도주의 위기 때문에 휴전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서 숨진 이

들은 4만2천 명에 달한다. 국제사회의 종전 촉구엔 네타냐후 정권이 수긍할지는 이번에도 미지수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집착하는 배경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언급한 것들과 같은 인질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휴전 협상이 번번이 좌절된 데에는 하마스와 타협을 꺼리는 네타냐후 총리의 반대가 한몫을 해왔다.

하마스의 완전 해체를 넘어 이스라엘을 둘러싼 새 안보지형 구축을 전쟁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명분은 하마스를 지원하는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을 분쇄한다는 새 임무와 함께 이미 레바논 침공으로까지 이어진 상태다.

이스라엘 내부 정세도 휴전에 중대 걸림돌이다. 네타냐후 연립정권은 가자지구를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땅'으로 여기며 팔레스타인과 타협을 거부하는 극우 세력이 한 축을 이룬다.

전쟁을 중단하기는커녕 휴전 협상에도 쉽게 나설 수 없는 이유다. 하마스, 헤즈볼라 등 중동 내 반이스라엘 세력을 주도하는 이란은 신와르의 사망에 심기가 더 불편해졌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에 이어 대규모 확전을 부를 수 있는 이란을 향한 군사 행동까지 준비하고 있다.

사설

손정의 미국 투자 전망

일본이 최근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하면서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를 놓고 한국은 게임 선포 문제로 손을 놓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마야요시 손(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최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리어라고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손정의 회장을 향해 당초 소프트뱅크의 투자 예정액인 1000억 달러를 2000억 달러로 늘려줄 수 있겠느냐고 농담하자 손 회장은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은 미국에 4년간 1000억 달러(약 143조8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자택인 〈팜비치 마리어〉 리조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프트뱅크는 1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최소 10만개의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손 회장이 대선 이후 우리 국가에 관해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세계를 다시 평화로 이끌기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생중계 기자회견 중 손 회장을 향해 투자 금액을 2000억 달러(약 287조 6000억 원)로 늘릴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손 회장은 "나의 약속은 1000억 달러였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더 많은 투자를 하라고 요청한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미소를 띠며 손 회장의 어개를 끌어당겼다. 소프트뱅크는 4년에 걸쳐 인공지능과 AI 인프라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신통일한국 송년기도회

대한민국기독교성직자협의회(KCLC)는 최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나라의 평안과 신통일한국을 염원하는 송년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는 한국종교협의회(종협)와 KCLC 소속 기독교 목회자 그리고 종교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계속되는 사회 갈등의 해결과 한민족 선민의식을 일깨워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다가오는 2025년을 맞이 하자는 의미로 열렸다. 종교의 임무는 세상의 정치가 해내지 못하는 세상에 영성을 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종교의 본질에 충실할 때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세계를 만들 수 있다.

나라의 위중한 상황 가운데 종교인이 모인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회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더 밝은 세상을 만들 것을 기원해야

한다. K-문화가 세계에 감동을 주듯, 희망과 변화를 선도하는 K-정치, K-종교가 시작되어야 한다. 지금은 대서양 문명을 거쳐 한반도를 중심으로 태평양 문명권이 도래하는 전환시대다.

종교가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종교의 구실을 하는 종교인들이 되어야 한다.

KCLC는 대한민국 내 기독교 성직자들이 모여 신앙과 연합의 정신으로 하나 되어 활동하는 협의체다.

한국종교협의회는 지원 아래 종교 평화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종교협의회는 1965년 창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범종교협의체로, 다양한 종단과 협력하여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신통일한국 실현을 위해 기도하고 활동하는 2025년을 만들 때이다. 홍익인간의 큰 뜻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생애 처음 몸무게 측정하는 새끼 피그미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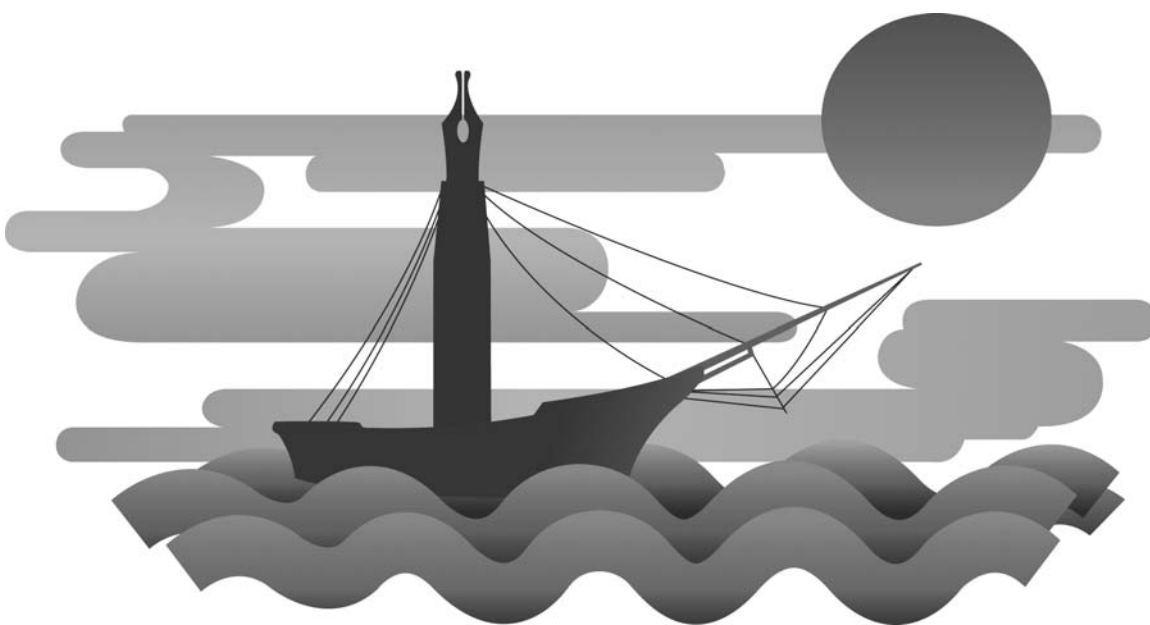


미 리치먼드 동물원이 지난 26일(현지시각) 제공한 사진에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동물원에서 지난 9일 태어난 새끼 피그미하마가 14일 몸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동물원 측은 암마 '아이리스'가 7개월의 임신 끝에 새끼 알컷을 낳았고 녀석은 지난 5년간 이 동물원에서 태어난 세 번째 피그미하마가 됐다고 전했다. 피그미하마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으로, 현재 야생에는 약 2,500마리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인 장례식서 오열하는 유족들



지난 26일(현지시각) 요르단강 서안지구 툴카렘에서 지난 24일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 8명의 장례식이 열려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에서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은 후 이들을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